



거리예술로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

일상은 할기를 잃고 마음은 지쳐만 가는 시대.
마스크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의 숨통을 트워 줄 '문화백신' 같은 축제가 다가온다.
국내 최고의 거리예술 작품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고양호수예술축제!
오는 가을, 예술이 전하는 위로의 에너지를 느껴 보자.

글. 김현빈(고양문화재단 지역문화팀 주임)



도심 곳곳을 물들이는 거리예술의 향연

고양시 도심 속 공원, 광장, 거리 곳곳이 무대가 되어 관객들을 맞이한다. 고양호수예술축제는 2008년부터 진행되어 온 고양시의 대표 문화행사로 거리극, 무용, 서커스, 공중 퍼포먼스, 불꽃 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예술을 아우르는 축제다. 올해의 축제는 오는 9월 3일 개막을 앞두고 있으며 5주간 44개의 거리예술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 '그림이 살아있다'

알고 보면 더 재밌는 고양호수예술축제

각양각색의 작품들이 풍성하게 펼쳐지는 고양호수예술축제! 놓치지 말아야 할 축제의 주요 프로그램들을 소개한다.

1. 다양한 창작 예술 프로그램

개·폐막주간에는 지역 예술 명인들의 예술창작 프로젝트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와 연계한 수준 높은 프로그램들을 만날 수 있다. 개막일인 9월 3일에는 세계적인 월드뮤직 그룹 '노름마치 예술단'이 평화를 소재로 창작한 음악을 통해 축제의 문을 활짝 연다. 폐막주간에는 현대무용가 김영미가 거리무용 <숲>을 통해 환경적 철학, 팬데믹 시대의 인간 실존 문제 등 시대를 향한 메시지를 몸짓으로 구현해 낸다.

2. 오감이 즐거운 다양한 공연

가족 단위 관람객이라면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놓치지 말자. 축제에 열기를 더할 예술불꽃 화랑의 <불 도깨비>, 와이어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펼쳐지는 월간 서커스의 <버스를 기다리며>는 모두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서울발레시어터의 <그림이 살아있다>는 그림에서 방금 튀어나온 듯한 발레리나들의 몸짓으로 마법 같은 순간을 선물한다. 창작중심 단디의 <단디우화-꿈을 찾아서>도 이번 축제의 기대작 중 하나로, 크레인에 줄을 매달아 공중에서 무용을 선보이는 에어리얼(공중 퍼포먼스)을 선보인다.

3. 관객이 직접 참여하는 축제

축제를 더욱 적극적으로 즐기고 싶다면 공연에 직접 참여해 보는 것은 어떨까. '비주얼씨어터 꽃'의 거리극 <전염병시대의 마사지법>은 관객이 공연자로 참여해 종이로 마사지를 하며 치유와 소통의 시간을 가지는 관객 참여극이다. 가족, 친구 또는 연인과 함께 작품에 참여하여 힐링의 시간을 누려보자.



(위 사진부터)
아트시그널 고양 마스터즈 '노름마치 예술단'
비주얼씨어터 꽃 '전염병시대의 마사지법'

관객은 거리 두기, 예술은 더욱 가까이!

이번 축제는 보다 안전한 진행을 위해 '분산형 축제'로 기획되었다. 축제는 9월 3일(금)부터 10월 10일(일)까지 5주에 걸쳐 11일간 진행되며, 장소 역시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를 중심으로 권역을 나누어 관객 밀집을 최소화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개편안 단계 조정에 따라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 전례 없는 팬데믹의 상황이 지속되며 모두에게 희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다. 오는 가을, 고양호수예술축제의 에너지로 오늘을 위로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

2021 고양호수예술축제

기간 2021. 9. 3.(금)~10. 10.(일)

장소 일산호수공원, 일산문화공원, 고양아람누리 등

프로그램 및 일정 고양호수예술축제 누리집(<http://www.gylaf.kr>)